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연구*

박 부 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인 대상관계질문지 (OR Inventory)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상관계질문지의 신뢰도 및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한국판 요인점수 산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416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상관계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관계질문지의 Cronbach α 계수, 반분신뢰도 (Spearman-Brown) 및 문항 요인점수간 상관성이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3주 후)도 비교적 우수한 편으로, 시간적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Bell 등의 연구(1986)에서 나타난 미국판 대상관계질문지의 요인구조와 유사하게 불안정 애착, 사회적 무능력, 소외 및 자기중심성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아울러 대상관계질문지 한국판 요인점수 산출을 위한 요인점수 계수가 도출되었다. 연구 2에서는 대상관계질문지의 공준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 240명에게 대상관계질문지를 실시하여, 연구 1에서 도출된 한국판 요인점수 계수를 적용하여 요인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하위 요인점수들과 성인애착 유형(애착 의존, 애착 불안, 애착 친밀) 사회성 부족, 정신분열성 성격 장애 및 자기중심성 등을 측정하는 검사들 간의 상관을 보았다. 그 결과, 해당 검사들 간에 중간 정도에서 강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가 대상관계라는 구성개념을 신뢰롭고 적절하게 반영하는 심리측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점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대상관계질문지 (OR Inventory), 요인구조, 내적 일관성, 시간적 안정성, 공준 타당도

* 본 연구는 첫 번째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이후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합하여 집필한 것임.

연구자는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서강대학교의 김정웅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박 부 형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

FAX : 031-787-4058 / E-mail : boohyung@hanmail.net

대상관계는 인간관계를 위한 개인의 능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정신분석적 이론가들 및 임상가들에게 인기 있고 풍부한 주제 (a popular and fertile heuristic)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관계 개념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조리 있게 진술된 이론적 입장 및 인정된 심리 측정 기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상관계를 평가하는 어려움 때문이었다.

대상관계 특징에 대한 단순하지만 합의된 관점은, 성격이란 내적 자기-타인 표상을 형성하는 초기 아동기 인간관계 경험에서 발달한다는 점이다. 이 자기-타인 표상은 현재 경험의 틀(templates)로 작용한다. 정상적 발달에서, 이 내적 정신 구조는 더 높은 수준의 발달 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화되며 유연하게 된다. 정신병리는 이러한 심리적 성장의 와해에서 비롯되며, 다양한 정신병리적 상태는 특정 단계에 발달이 멈춘 것으로 묘사된다. 정신분열증, 우울증, 자기애적 성격장애 및 경계선적 성격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병리에 대한 설명적 가설이 대상관계 관점을 사용한 이론 및 임상적 경험으로부터 나왔다. 이와 같이 대상관계 이론은 개인의 성격과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에도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개인의 대상관계 수준을 양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그 중 우선 시도된 것은 투사적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여러 이론가들이 대상관계 발달 과정 및 연속적 단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cf. Fairbairn, 1952; Kernberg, 1975; Anni, Mahler, & Pine, 1975). 이들은 개인의 대상관계 수준을 양화(量化)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대상관계 질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을 Rorschach 반응(Blatt & Ritzler, 1974; Urist, 1977), 초기 아동기 기억 주제(Mayman, 1968; Bell

& Ryan, 1984) 및 꿈의 내용(Krohn & Mayman, 1974)을 해석함으로써 시도하였다. 대상관계의 질을 측정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대상관계가 꿈, 기억 혹은 통각이라는 투사적 내용으로 포착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대상관계의 질을 평가하려는 또 다른 시도는, 자아 기능의 일부로서의 대상관계를 개인의 대인관계 행동 양식 및 대인관계 경험 방식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왔다. Bellak, Gediman 및 Hurvich(1973)는 환자들이 자신들의 인간관계 경험을 묘사한 임상적 면접에 근거하여, 대상관계 평정을 위한 중다차원적 연속선을 제시하여, 대상관계 측정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Bell, Metcalf 및 Ryan(1979, 1980)은, Bellak 이 기술한 대상관계 기능 수준에 기초하여 환자들의 관계 경험 및 특징적 관계 유형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개작하여 만든 항목으로 이루어진, 진위형(true-false)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질문지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상관계에 대한 자기보고형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상관계의 질적 분석을 통하여 대상관계 질에 따라 특정 정신병리 집단 및 심리적 특징을 지닌 집단을 다른 집단과 변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Alpher, 1991, 1992; Bell, Lysaker, & Milstein, 1992; Hadley, 1992; Hadley, Holloway, & Mallinckrodt, 1993; Haviland, Sonne, & Wood, 1994; Humphrey, 1990; Leggett, 1992; Mallinckrodt, Coble, & Gantt, 1993; Sacco, 1993; Stack, 1993; Strand, 1993; Ulrich, 1993).

대상관계라는 개념은 개인의 생애 초기 원초적인 경험에 근거한 무의식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투사적 측정치로 더 명확하고 타당하게 포착될 수 있는 반면에, 대상관계 측정치로서 투사적 검사의 한계는 신뢰도가 낮고 실시 및 채점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상관계 관련

정신병리 연구들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임상장면에 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고 실시 및 채점 절차가 간편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의 사용이 요구되며, 따라서 대상관계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Bell, Billington 및 Becker 등이 개발한(1986) 대상관계질문지를 우리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대상관계질문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회사에서는 대상관계질문지의 원반응이 요인점수로 전환되는 logic을 제공하지 않아, 요인 점수 결과가 필요한 경우 미국 성인 비임상집단 약 1,000명을 기초로 제작한 기준을 기준삼아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WPS 회사의 W-2013)을 수입하여 각 하위척도의 요인점수를 계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채점 체계를 만들었

다. 대상관계질문지에 기저하는 기본 논리는 대상관계라는 구성개념은 여러 개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하위 구성개념들은 다시 그 구성개념의 의식적 파생물들을 반영하는 개별 문항들에 의해 자기보고형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관계 하위 구성 요인들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독립된 구성개념은 아니며, 요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합의된 내용이다(Bell, Billington, & Becker, 1986).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K-OR Inventory) 개발의 선행 연구로 대상관계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통해 대상관계 하위 구성개념들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1.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의 신뢰도, 구성타당도(요인구조) 및 한국판 요인점수 산출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1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수도권 소재 C대학교와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과 철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416명(남자, 165명; 여자 251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9($SD=4.77$)세, 범위는 17-50세였다.

검사 도구

연구 1에서는 대상관계질문지가 사용되었다.

대상관계질문지(OR Inventory)

대상관계질문지는 Bell 등(1986)이 Bellack과 그의 동료들(1973)에 의해 개발된 평가면접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45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대상관계질문지는 소외(Alienation: ALN),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 IA), 자아중심성(Egocentricity, EGC) 및 사회적 무능력(Social Incompetence: SI)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Bell의 원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안한 후, 임상심리 전문가 1명, 영어에 능통한 인지심리학자 1명 및 C대 심리학과 대학원생 10명의 조언과 검토를 거친 후 완성하였다. 미국판 대상관계질문지의 채점은 미국 성인 비임상집단 약 1,000명을 기초로 제작한 기준을 기준삼아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회사의 W-2013)을 이용하여 각 하위 척도의 요인점수를

계산하였는데,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회사는 원점수가 요인점수로 전환되는 논리(logic)를 문헌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결과는 T -Score(30 T ~80 T)와 백분율(percentile) 점수로 산출되며, 50 T 가 평균이고 병리적 수준의 절단점(cut-off)은 60 T 이상이다. 본 연구에서의 채점은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점수 계수를 사용하여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소의 하위 척도는 기본적 신뢰의 부족, 가까운 관계 형성의 불능,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친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무망감을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피험자들은 의심, 경계심 및 소외감을 느끼며, 누구와도 자신의 가장 속마음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Bell 등(1986)의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90, 검사-재검사 신뢰도(4주 후)는 .88이었다.

불안정 애착 하위 척도 문항들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피험자들의 주제는 대인관계에서의 고통스러움(painfulness)이다. 이들은 거절에 매우 예민하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관계 자체가 중요하지만 걱정, 죄책감 및 질투로 인해 강렬한 가학피학성(sadomasochistic)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들은 분리되고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타인과 관계를 즐기기 보다는, 안전을 위한 고통스러운 갈구로 관계를 시작하며, 타인이 독자성을 구분 지으려 하면 이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대상상실의 두려움은 버려짐(abandonment)에 과민하게 하고, 관계의 상호성 및 자율성을 얻기 어렵게 만든다. Bell 등(1986)의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2, 검사-재검사 신뢰도(4주 후)는 .73이었다.

자아중심성 하위 척도는 관계에서의 세 가지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믿을 수 없다. 둘째, 타인은 단지 나와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셋째, 타인을 자기중심적 목표(self-centered aims)를 위하여 조종할 수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피험자는 자기보호적(self-protective)이고 착취적인 태도를 지니며, 참견이 많고(intrusive) 강요적이며(coersive) 요구적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하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타인을 누르고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상호적인 목표를 위한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Bell 등(1986)의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78, 검사-재검사 신뢰도(4주 후)는 .90이었다.

사회적 무능력 소척도의 많은 항목들은 이성(異性)과 상호작용에서의 수줍음, 안전부절함(nervousness), 불확실성(uncertainty)의 정도를 측정한다. 나머지 항목들은 우정 형성의 불능,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social insecurity), 친밀한 관계의 결핍(absence of close relationships) 및 불만족스러운 성적 적응(unsatisfactory sexual adjustment)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피험자들은 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가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반응이 없고 정서적으로 둔하며 적개심이나 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Bell 등(1986)의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79, 검사-재검사 신뢰도(4주 후)는 .88이었다.

절차

416 명의 피험자들에게 대상관계질문지를 집단으로 실시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얻기 위해 이들 중 일부(156명)에게 3주 후 대상관계질문지를 다시 집단으로 실시하여 시간적 안정성

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분석방법

결과 분석(신뢰도와 요인분석 및 요인점수 산출)에는 SPSS WINDOW 11.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신뢰도

내적 합치도(Cronbach α 계수, Spearman-Brown 및 문항-요인점수 간 상관)

대상관계질문지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 계수는 .84이었고, Spearman-Brown 계수는 .83이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 하위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7, Spearman-Brown 계수는 .71, 사회적 무능력 하위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71, Spearman-Brown 계수는 .59, 소외 하위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61, Spearman-Brown 계수는 .52, 그리고 자아중심성 하위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60, Spearman-Brown 계수는 .56으로 나타났다. 문항-요인점수간 상관은 15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간 정도에서 강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 하위 척도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26에서 .67이었고, 불안정 애착 요인을 가장 대표하는 문항은 36번 문항(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할까봐 신경을 쓴다)이었다. 사회적 무능력 하위 척도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16에서 .76이었고, 사회적 무능력 요인을 가장 대표하는 문항은 43번 문항(나는 이성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 수줍음을 탄다)으로 나타났으며, 15번 문항(나의 성생활은 만족스

럽다)은 $r=.16$ 으로 낮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소외 하위 척도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21에서 .61이었고, 소외 요인을 가장 대표하는 문항은 4번 문항(나는 몇 주일씩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으로 나타났다. 자아중심성 하위 척도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24에서 .67이었고, 자아중심성 요인을 가장 대표하는 문항은 31번 문항(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이었다.

시간적 안정성(검사-재검사간 상관)

연구 1의 피험자들 중 156명이 3주 간격으로 실시한 대상관계질문지 재검사에 참여하였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 하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사회적 무능력 하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소외 하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 그리고 자아중심성 하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5로 나타났다.

타당도

구성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대상관계질문지 45개 문항 원반응을 대상으로 SPSSWIN 11.0을 사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14개로 고유치 값은 다음과 같았다: 6.20, 2.63, 2.30, 1.60, 1.49, 1.47, 1.43, 1.28, 1.24, 1.19, 1.12, 1.06, 1.05, 1.02. Sree plot을 살펴보면, 요인수가 4개를 넘어가면서 요인간 고유치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 요인을 4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대상관계질문지 45개 문항의 원반응을 최대

표 1. 연구 1의 대상관계질문지 요인구조

	요인 1 (불안정 애착)	요인 2 (사회적 무능력)	요인 3 (소외)	요인 4 (자아중심성)
고유치	6.20	2.63	2.30	1.60
설명변량(%)	13.78	5.84	5.10	3.56
누적변량(%)	13.78	19.62	24.72	28.28

우도법 방식으로 4개 요인을 지정하여 direct oblimin 방법(델타=0)을 이용해서 회전시켜 표 1 및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상관계 구성 요인들 사이에 독립성을 전제하는 통계 전략은 실제적으로 소척도들의 타당도를 약화시킬 수 있고, 사각 회전은 직교 회전보다 설명량을 증가시킨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각 회전이 선택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변량은 28.28%이고, 요인 1은 13.78%, 요인 2는 5.84%, 요인 3은 5.10%, 그리고 요인 4는 3.56%의 변량을 각각 설명하였다. 표 3은 연구 1의 대상관계질문지의 구조 요인계수 행렬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Bell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각 하위 요인에 묶여지는 문항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문항 비교를 하지는 못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각 요인간 상관행렬을 보면, 요

표 2. 연구 1에서의 요인 간 상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요인 2	.482 **			
요인 3	.272 **	.223 **		
요인 4	.389 **	.137 **	.095	

** $p < .01$ (양방향검증)

인 1과 2, 3 및 4간에는 .27-.48의 중간 정도의 상관관이 있고, 요인 2와 3에는 .22의 중간 정도의 상관관이 있으나, 요인 2와 요인 4간에는 .14의 낮은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3과 요인 4간에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인 2와 요인 4는 비교적 무관하고,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서로 상관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는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한국판 요인점수 계수로,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판 요인점수가 산출되게 되었다. 즉, 요인 1의 점수는 각 문항의 원반응에 요인 1 요인점수계수를 곱하여 모두 더한 총합이고, 요인 2의 점수는 각 문항의 원반응에 요인 2의 요인점수계수를 모두 더한 총합이다. 같은 방법으로, 요인 3의 점수는 각 문항의 원반응에 요인 3의 요인점수계수를 곱하여 모두 더한 총합이고, 요인 4의 점수는 각 문항의 원반응에 요인 4의 요인점수계수를 곱하여 모두 더한 총합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판 요인점수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한국판 대인관계질문지 하위 척도 점수와 미국 기준 대인관계질문지 하위 척도 점수와 상관관을 구하면 표 5와 같다.

표 3. 연구 1의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구조 요인계수 행렬

문 항	요인계수			
	1	2	3	4
요인1. 불안정에착(15문항)				
1(3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할까봐 신경을 쓴다.	.57	.44	.05	.38
2(33). 나는 소외당할까봐 종종 두려워한다.	.56	.45	.09	.40
3(20). 나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54	.14	.18	.10
4(34).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거부할지 모른다고 느낀다.	.47	.29	.18	.45
5(12).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을 때, 나는 상처받고 거부당한 느낌이 든다.	.44	.23	-.07	.37
6(22). 내가 아무리 애써서 피하려 해도, 나에게 중요한 관계들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나타난다.	.39	.28	.22	.22
7(41). 사람들은 결코 상대방에게 솔직하지 않다.	.39	.18	.38	.26
8(26). 나의 이성(異性)관계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끝이 난다.	.37	.17	.24	.19
9(29). 나는 어느 누군가를 믿고 나서 대개 후회한다	.35	.22	.34	.21
10(9). 나는 비판에 매우 예민하다.	.34	.21	-.03	.29
11(8). 가정 내에서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나는 가족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다.	-.33	-.19	-.03	.02
12(13). 내가 누군가와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아마도 나 자신을 미워할 것이다	.30	.24	.07	.10
13(23). 나는 누군가와 완전히 일치하기를 갈망한다	.28	.18	.19	.28
14(5). 나는 대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관계를 끝낸다.	.24	.05	.15	.12
15(17).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나는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	.22	.17	.08	.12
요인2. 사회적 무능력(9문항)				
1(43) 나는 이성(異性)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 수줍음을 탄다.	.06	.69	.11	.13
2(38). 나는 이성(異性)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또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모른다.	.18	.68	.25	.06
3(14).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41	.58	.26	-.08
4(32). 이성(異性)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나는 종종 초조함을 느낀다	.20	.56	.17	.13
5(37). 친구사귀는 일은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30	-.50	-.25	.10
6(30). 나는 친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27	-.45	-.07	.02
7(28). 나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보통 남들에게 의존한다	.24	.36	.15	.35
8(25). 나는 사람들을 꽤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다	-.21	-.27	.02	.01
9(15). 나의 성생활(sex life)은 만족스럽다.	-.10	-.15	-.09	-.04

표 3. 계속

문	항	요인계수			
		1	2	3	4
요인3. 소외(11문항)					
1(40).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32	.19	.50	.03
2(35).	나는 몇 달씩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	.18	.08	.48	.17
3(4).	나는 몇 주일씩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02	.03	.47	.00
4(18).	나는 내 주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07	.18	.44	.01
5(3).	나는 계속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	.21	.13	.42	.14
6(27).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주 모욕하려고 한다.	.18	.13	.41	.14
7(42).	나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	-.18	-.24	-.32	.08
8(1).	나는 적어도 한 사람이상과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4	-.20	-.30	-.07
9(7).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어디론지 멀리 떠난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할 것이다.	.11	-.03	-.26	.00
10(21).	나에게는 깊은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23	-.23	-.24	.04
11(19).	사람들을 내가 직접 볼 수 없다면 그들은 내 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00	-.00	.20	.15
요인4. 자아중심성(10문항)					
1(31).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13	-.07	.13	.56
2(39).	나와 친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없을 때, 나는 상처받거나 화가 난다.	.40	.18	.06	.41
3(16).	나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	.16	.24	-.06	.40
4(1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은밀하게 즐긴다.	.18	-.02	.08	.40
5(24).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과 항상 같이하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못한다.	.31	.16	.24	.35
6(11).	때때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한다.	.11	-.07	.19	.34
7(6).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 취급하기보다 아이로 취급한다.	.13	.08	.11	.28
8(45).	나는 좋은 어머니란 자기 자녀들을 항상 기쁘게 해 주어야한다고 믿는다.	.08	.07	.15	.26
9(2).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한다.	-.03	.00	-.09	.26
10(44).	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20	.01	.16	.22
고유치		6.20	2.63	2.30	1.60
전체 설명변량(%)		28.28			

표 4. 연구 1의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요인점수 계수 행렬

문	항	요인점수 계수			
		1	2	3	4
요인1. 불안장애척(15문항)					
1(3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할까봐 신경을 쓴다.	.170	.084	-.081	.079
2(33).	나는 소외당할까봐 종종 두려워한다.	.158	.090	-.065	.095
3(20).	나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196	-.025	.019	-.052
4(34).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거부할지 모른다고 느낀다.	.092	.024	.012	.121
5(12).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을 때, 나는 상처받고 거부당한 느낌이 든다.	.115	.021	-.089	.083
6(22).	내가 아무리 애써서 피하려 해도, 나에게 중요한 관계들에서 똑같은 어려움들이 나타난다.	.074	.025	.032	.024
7(41).	사람들은 결코 상대방에게 솔직하지 않다.	.076	-.012	.108	.042
8(26).	나의 이성(異性)관계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끝이 난다.	.082	-.004	.047	.016
9(29).	나는 어느 누군가를 믿고 나서 대개 후회한다	.058	.006	.088	.029
10(9).	나는 비판에 매우 예민하다.	.070	.021	-.051	.058
11(8).	가정 내에서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나는 가족관계를 헤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다.	-.099	-.019	.025	.054
12(13).	내가 누군가와 친해졌는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아마도 나 자신을 미워할 것이다	.064	.029	-.011	-.008
13(23).	나는 누군가와 완전히 일치하기를 갈망한다	.035	-.008	.035	.058
14(5).	나는 대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관계를 끝낸다.	.055	-.017	.031	.008
15(17).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나는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	.038	.017	.001	.009
요인2. 사회적 무능력(9문항)					
1(43)	나는 이성(異性)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 수줍음을 탄다.	-.152	.290	-.010	.064
2(38).	나는 이성(異性)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또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잘 모른다.	-.067	.239	.059	-.009
3(14).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121	.158	.042	-.141
4(32).	이성(異性)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나는 종종 초조함을 느낀다	-.025	.145	.015	.019
5(37).	친구사귀는 일은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062	-.115	-.046	.103
6(30).	나는 친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048	-.097	.024	.052
7(28).	나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보통 남들에게 의존한다	-.011	.063	.015	.101
8(25).	나는 사람들을 꽤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다	-.046	-.049	.037	.032
9(15).	나의 성생활(sex life)은 만족스럽다.	-.008	-.021	-.013	.002

표 4. 계속

문 항	요인점수 계수			
	1	2	3	4
요인3. 소외(11문항)				
1(40).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075	-.006	.177	-.042
2(35). 나는 몇 달씩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	.007	-.025	.169	.039
3(4). 나는 몇 주일씩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028	-.019	.180	-.002
4(18). 나는 내 주위에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028	.019	.151	-.006
5(3). 나는 계속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	.021	-.009	.132	.020
6(27).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주 모욕하려고 한다.	.008	-.005	.126	.026
7(42). 나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는다.	-.031	.032	-.089	.056
8(1). 나는 적어도 한 사람이상과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001	.022	-.079	-.005
9(7).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어디론지 멀리 떠난다면, 그 사람을 그리워할 것이다.	.056	-.004	-.092	-.014
10(21). 나에게서 깊은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047	-.029	-.051	.046
11(19). 사람들을 내가 직접 볼 수 없다면 그들은 내 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030	-.012	.064	.050
요인4. 자아중심성(10문항)				
1(31).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033	-.060	.047	.239
2(39). 나와 친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없을 때, 나는 상처받거나 화가 난다.	.081	.002	-.023	.103
3(16). 나는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대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	-.018	.046	-.055	.133
4(1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은밀하게 즐긴다.	.011	-.032	.014	.121
5(24).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과 항상 같이하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못한다.	.037	-.003	.052	.087
6(11). 때때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한다.	-.005	-.043	.060	.106
7(6).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 취급하기보다 아이로 취급한다.	-.006	-.002	.022	.078
8(45). 나는 좋은 어머니란 자기 자녀들을 항상 기쁘게 해 주어야한다고 믿는다.	-.021	-.002	.038	.078
9(2).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한다.	-.039	.002	-.028	.093
10(44). 내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033	-.024	.037	.048

표 5. 연구 1의 미국 기준 대상관계질문지 요인점수와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요인점수의 상관 분석(n=416)

	1	2	3	4	5	6	7	8
1. 불안정애착(미)								
2. 사회적 무능력(미)	.407**							
3. 고립(미)	.395**	.428**						
4. 자이중심성(미)	.574**	.114*	.335**					
5. 불안정애착(한)	.874**	.439**	.578**	.462**				
6. 사회적 무능력(한)	.400**	.898**	.647**	.125*	.482**			
7. 고립(한)	.211**	.024	.729**	.574**	.272**	.223**		
8. 자이중심성(한)	.704**	.244**	.008	.678**	.389**	.137**	.095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연구 2. 한국판 대상관계 질문지의 요인점수를 적용한 공존타당도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2에 참여한 피험자는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종교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40명(남자, 187명; 여자, 5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70($SD = 2.32$)세, 범위는 18~28세였다.

검사 도구

연구 2에서는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이외에 성인애착척도,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하위 척도 중 사회성 부족 척도, MMPI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척도 및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하위 척도 중 자기중심성 척도 등이 사용되었다.

성인애착척도 (Adult Attachment Scale: AAS)

이 척도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 검사로서 Hazan과 Shaver의 3가지 애착 유형 척도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Collins와 Read는 Hazan과 Shaver가 개발한 진술문을 문장 단위로 쪼개어 각 유형마다 5개씩 15개의 문항으로 만들고 자신이 애착대상을 필요로 할 때 얼마나 반응적이라고 믿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하나씩 첨가하여 총 18개의 문항을 구성했으며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척도에서는 대인관계 차원을 애착 의존(dependence), 애착 불안(anxious), 애착 친밀(close)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한다. 애착-의존 척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상대방이 이용가능(available)하고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애착-불안 척도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정도를, 애착-친밀척도는 다른 사람과의 가까워짐(closeness)과 친밀(intimacy)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애착 의존 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보다 일방향적인 믿음의 정도인 반면, 애착 친밀 척도는 나와 상대방의

상호작용적 특징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이방향적인 성질을 반영한다. 1번, 2번, 5번, 6번, 7번, 15번, 16번 및 18번은 역채점된다.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

대인관계문제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IIP)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밝히며, 성격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및 Villaseñor(1988)는 심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면접 장면을 녹화하여,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선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대인관계문제검사(IIP)를 개발하였다. IIP는 이 검사의 문항에서 이론적, 경험적으로 도출한 두 가지 독립적 검사인 원형척도(IIP Circumplex Scale, IIP-C; Alden, Wiggins, & Pincus, 1990)와 성격장애척도(IIP Personality Disorder Scales, IIP-PD; Pionis, Kim, Proietti, & Barkham, 1996)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환 등(2002)은 IIP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사람 실정에 맞는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성 부족 척도는 5개의 성격장애 척도 중 하나이고, 자기중심성 척도는 8개의 원형 척도 중 하나이다.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하위 척도 중 사회성 부족 척도

사회성부족척도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감 및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Crohnbach α 계수는

.86, 검사-재검사 신뢰도(8주 간격)는 .82였고,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Crohnbach α 계수는 .84, 검사-재검사 신뢰도(8주 간격)는 .76이었다.

MMPI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척도(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Scale)

MMPI는 Stark Hathaway와 Jovian Mckinley(1945)가 개발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객관적 성격검사로, 56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MMPI는 타당도 및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김영환 등(1989)이 표준화를 하였고, 안창일과 박병관(1993)은 MMPI를 이용하여 성격장애척도를 개발하였다. 정신분열성 성격장애는 MMPI 성격장애 척도의 하위 척도로 정신분열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반영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와 사회 활동의 기피, 자기-의존적인 특성, 무감정 및 무기력감 등을 측정한다. 2번, 3번, 4번, 8번, 13번, 14번, 15번, 18번, 19번 및 20번 문항은 역채점된다.

한국형 대인관계검사 하위 척도 중 자기중심성척도

자기중심성 척도는 적대적 지배성에 관한 영역을 측정한다.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지요구,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Crohnbach α 계수는 .77, 검사-재검사 신뢰도(8주 간격)는 .59였고,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α 계수는 .75, 검사-재검사 신뢰도(8주 간격)는 .66이었다.

절차

240 명의 피험자들에게 대상관계질문지 이외에

성인애착척도,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하위 척도 중 사회성 부족 척도, MMPI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척도 및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하위 척도 중 자기중심성 척도 등을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결과분석(상관분석)에는 SPSS WINDOW 11.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연구 1에서 도출된 한국판 요인점수 계수를 적용하여 대상관계질문지 모든 문항의 원반응에 각 요인 별 요인점수 계수를 곱하여 그 총합으로 해당 요인의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6은 미국 정상 성인을 기준으로 한 요인점수와,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요인점수와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가 원반응이 요인점수로 전환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요인점수의 산출방식이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공존 타당도(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연구 2에서 대상관계질문지의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하위 척도 점수와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이 분석에서 비교한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의 하위 척도 점수들은, 연구 1에서 도출된 한국판 요인점수계수를 연구 2 피험자들의 대상관계질문지 원 반응에 적용하여 산출한 요인점수들로, 상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정 애착 하위 척도는 애착불안 척도와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중심성 척도, 사회성부족 척도 및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애착-의존 척도 및 애착-친밀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무능력 하위 척도는 사회성 부족 척도 및 정신분열성

표 6. 연구 2의 미국 기준 대인관계질문지 요인점수와 한국판 대인관계질문지 요인점수의 상관 분석(n=240)

	1	2	3	4	5	6	7	8
1. 불안정애착(미)								
2. 사회적 무능력(미)	.231 **							
3. 고립(미)	.376 **	.371 **						
4. 자아중심성(미)	.556 **	-.010	.382 **					
5. 불안정애착(한)	.862 **	.257 **	.534 **	.498 **				
6. 사회적 무능력(한)	.289 **	.885 **	.606 **	.056	.347 **			
7. 고립(한)	.219 **	.029	.734 **	.607 **	.269 **	.228 *		
8. 자아중심성(한)	.721 **	.191 **	.031	.607 **	.413 **	.117	.095	

*p < .05(양방검증), **p < .01(양방검증)

표 7.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하위 척도와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 불안정애착											
2. 사회적 무능력	.347 **										
3. 소외	.269 **	.228 **									
4. 자아중심성	.413 **	.117	.095								
5. 성인애착(총점)	-.006	-.064	-.110	.122							
6. 애착-의존	-.445 **	-.181 **	-.330 **	-.186 **	.598 **						
7. 애착-불안	.568 **	.342 **	.327 **	.385 **	.395 **	-.336 **					
8. 애착-친밀	-.338 **	-.411 **	-.296 **	-.139 *	.486 **	.392 **	-.399 **				
9. 사회성 부족	.384 **	.589 **	.439 **	.198 **	-.181 **	-.389 **	.423 **	-.497 **			
10. 정신편열성 성격장애	.312 **	.545 **	.449 **	.022	-.290 **	-.317 **	.290 **	-.577 **	.576 **		
11. 자기중심성	.417 **	.214 **	.529 **	.249 **	-.244 **	-.515 **	.363 **	-.373 **	.591 **	.351 **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성격장애 척도와 비교적 강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애착-불안 척도 및 자기중심성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에 비해 애착-친밀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소외 하위 척도는 자기중심성 척도와 비교적 강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신편열성 성격장애 척도, 사회성 부족 척도 및 애착-불안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애착-의존 및 애착-친밀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아중심성 하위 척도는 애착-불안 척도 및 자기중심성 척도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하위 척도들 중 어느 하나도 애착-친밀 척도 및 애착-의존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Bell 등(1986)이 개발한 대상관계질문지(OR Inventory)를 우리나라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대상관계질문지의 신뢰도 및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한국판 요인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한국판 요인점수계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한국판 요인점수계수를 적용하여 연구 2 피험자들의 대상관계질문지 모든 문항의 원반응에 각 요인 별 요인 점수 계수를 곱하여 그 총합으로 해당 요인의 요인점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인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하위 척도 점수들과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공준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1과 2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관계질문지의 전체 문항 Crohnbach α

계수와 반분 신뢰도(Spearman-Brown)는 각각 .84와 .83으로 모두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별 Crohnbach α 계수와 반분 신뢰도(Spearman-Brown)는 불안정 애착 하위 척도의 경우, 각각 .77과 .71로, 사회적 무능력 하위 척도의 경우, 각각 .71과 .59, 소외 하위 척도의 경우, .61과 .52, 그리고 자아중심성 하위 척도의 경우, .60과 .56으로 나타났다.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Crohnbach α 계수가 .78-.90의 범위에 있으며, 반분 신뢰도(Spearman-Brown)는 .78-.90의 범위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항-요인점수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15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Pearson 상관계수 r 이 .21-.76의 중간 정도에서 강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이는 대상관계질문지 문항들이 각 하위요인의 하위 구성개념을 대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항-요인점수간 상관이 .20에 이르지 못한 15번 문항은 향후의 연구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항-요인점수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할까봐 신경을 쓴다($r=.67$ /불안정 애착 하위 요인), '나는 이성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 수줍음을 탄다($r=.76$ /사회적 무능력 하위 요인), '나는 몇 주일 씩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r=.61$ /소외 하위 요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r=.67$ /자아중심성 하위 요인)'가 각 하위 요인을 가장 대표하는 문항들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적 안정성을 반영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3주 후)는, .55-.82의 범위로 나타났고,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73-.90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범위를 보이고 있으나, 자아중심성 하위 요

인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55로 Bell의 타당화 연구 결과($r=.90$)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자아중심성이란 하위 요인은 시간에 따른 안정성이 다른 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관계질문지 요인분석 결과, 미국판 대상관계질문지와 거의 유사한 4개의 요인구조가 나왔는데,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의 구성타당도는 미국판 대상관계질문지의 하위 척도들과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입증되었다($r=.61-.90$). 4개 요인간에 관계의 분석에서 요인들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관계 하위 구성 요인들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독립된 구성개념은 아니며, 요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서론의 전제와 일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양상이다. 즉 불안정 애착 하위 요인과 사회적 무능력 하위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상관은 .48,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33, 불안정 애착 하위 요인과 소외 하위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상관은 .27이었고,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49, 불안정 애착 하위 요인과 자아중심성 하위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상관은 .39,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42, 사회적 무능력 하위 요인과 소외 하위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상관은 .22,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48, 사회적 무능력 하위 요인과 자아중심성 하위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상관은 .14,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21, 그리고 소외 하위 요인과 자아중심성 하위 요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50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들간의 상관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대상관계질문지를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요인구조가 질적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본 연구에서의 대상관계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와 Bell의 타당화 연구에서의 미국 기준 요인분석 결과에서의 차이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두 연구에서 모두 문항들이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이고 있으며, 4개 하위 요인의 전체 설명량과 전체 고유치가 본 연구에서는 28.3%, 12.73,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28.7%, 12.92로 비슷하다. 그러나 각 요인의 고유치 및 설명 변량은 두 연구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 하위 요인의 고유치가 6.20으로 대상관계 측정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소외 하위 요인의 고유치가 8.98로 대상관계 측정치의 가장 폭넓은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사람들의 대상관계 구성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상관계 구성개념이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은 주로 고립, 외로움, 단절 및 소외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주된 어려움은 대인관계에서의 지나친 예민함 및 과도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 2에서의 한국판 대인관계질문지 하위 척도 점수와 해당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r=.25-.59$ 의 범위로 중간 정도에서 비교적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가 대상관계라는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하위 척도들 중 어느 하나도 애착-친밀 척도 및 애착-의존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는 바, 이러한 결과는 대상관계라는 개념이 애착에서의 문제 및 어려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1의 요인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서 대상관계 개념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애착 요인이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친밀감 및 의존과 관련된 문제와 유기불안과 같은 어려움을 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대상관계라는 구성개념을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타당화한, 몇 개 안 되는 연구들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상관계에 대한 평가 및 연구는 주로 투사적 검사를 통한 것들이었다(민병배, 김종술, 1993; 최승미, 1997; Westen, 1991). 그런데 투사적 검사의 한계점은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대상관계 관련 정신병리 연구들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임상장면에 활발하게 응용할 수 있기 위해서, 신뢰도가 확보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요인점수 산출 방식을 도출함으로써,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의 보다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한국판 요인점수 계수를 사용하면 적어도 대학생 집단의 대상관계질문지 하위 요인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고려해 보겠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 결과를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 집단에 성급하게 적용시켜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가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교차 타당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2의 경우 피험자들 중 여자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 2의 결과 중 일부는 성별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질문지의 요인구조가 나이, 성(性) 및 사회적 선회도에 따른 반응 편향이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화적 특징, 특히 이성(異性)과 관련된 문항들에서 성별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에 기인하는 혼입 요인(confounding factor)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통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얻은 대상관계 측정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통하여 얻은 자료이다. 그런데 대상관계라는 개념은 개인의 초기 경험에 근거한 무의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꿈, 기억 혹은 통각(apperception)이라는 투사적 개념으로 더 명확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사검사 결과와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하여 한 개인의 대상관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투사검사 및 자기보고형 대상관계 측정치들의 통합을 통하여, 한 개인의 대상관계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대인관계문제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중술 (1996).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병배, 김중술 (1993). Rorschach 검사에 나타난 대상 표상, 내용 범주, 그리고 형태질 간의 관계. 정신의학, 18(3), 27-35.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최승미 (1997). Rorschach 검사에 기초한 대상표상 평가 - 우울 두 하위 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Alpher, V. (1991). Assessment of ego function in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 373-387.
- Alpher, V. (1992). Change in identity and self-organization in psychotherapy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Psychotherapy*, 29, 570-579.
- Bell, M. D., Lysaker, P. H., & Milstein, R. M. (1992). Object relations deficits in subtypes of schizophreni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433-444
- Bell, M. D. (1995). *Manual for Bell object relations and reality testing inventory*. Californi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ell, M. D., Billington, R. J., Becker, B. R. (1985). Scale for the assessment of reality testing: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ial invari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6-511.
- Bell, M., & Billington, R. Becker, B. R. (1986).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object relations: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ial invariance.

-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733-741.
- Bellak, L., Hurvich, M., & Gediman, H. (1973). *Ego functions in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New York: Wiley.
- Bell, M., Metcalf, J., & Ryan, E. (1979). *Reality testing and object relations: A self report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8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Bell, M., Metcalf, J., & Ryan, E. (1980). *Reality testing-object relations assessment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Paper presented at the 8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 Blatt, S., & Ritzler, B. (1974). Thought disorder and boundary disturbance in psycho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 370-381.
- Fairbairn, W. R. (1952). *An object relations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Basic Books.
- Hadley, J. A. (1992).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dysfunction, family interactional style, and the self-representations and object relations of adult offspring of dysfunctional famili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2, 4975B.
- Hadley, J. A., Holloway, E. L., & Mallinckrodt, B. (1993). Common aspects of object relations and self-representations in offspring from disparate dysfunctional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48-356.
- Haviland, M. G., Sonne, J. L., Woods, L. R. (1994). *Beyo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bject relations and reality testing disturbances in psychiatric and sexually abused adolescents*. (Available from M. G. Haviland, Department of Psychiatry, Loma Lind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Loma Linda, CA 92350)
- Humphrey, G. W. (1990). Cross-dressing in males: The attempt to retain the comforting object.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at San Diego, 1990).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9009611)
-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rohn, A., & Mayman, M. (1974). Object relations in dreams and projective test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38, 445-466.
- Leggett, C. (1992). *Object relations, self-help, and recovery from cocaine addiction: An empir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Y.
- Mahler, M., Pine, F., & Anni, B.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Mallinckrodt, B., Coble, H. M., & Gantt, D. L. (1993). Client attachment history and the form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 F. B. Lopez & D. L. Blustein (Chairs), *Contemporary extensions of attachment theor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Symposium conducted at the 101s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Reprint available from Brent Mallinckrodt, Ph. D., University of Oregon,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Eugene, OR 97403-1215)
- Mayman, M. (1968). Early memories and character structure.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Personality Assessment*, 32, 303-316.
- Pilkonis, P. A., Kim, Y., Proietti, J. M., & Barkham, M. (1996). Scale for personality disorders

- developed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0, 355-369.
- Ryan, E. R., & Bell, M. D. (1984). Change in object relations from psychosis to recover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09-215.
- Sacco, M. (1993). *Quality of fantasy and reality testing in survivor of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Presented at the 12th Annual Research and Treatment Conference, The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Boston, MA.
- Stack, J. E. (1993). *The relationships among aspects of object relations, alexithymia, and addictive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Education, Health, Nursing and Arts profess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 Strand, P. (1993). *Predicting maladaptive parenting: The role of maternal object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 Stricker G., & Healey, B. J. (1990). Projective assessment of object relation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 219-230.
- Ulrich, N. J. (1993). *Object relations deficits and depression in bulimic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 F. Dernier Institute for Advanced Psychological Studies, Adelphi University, Garden City, NY.
- Urist, J. (1977). The Rorschach test and the assessment of object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3-9.
- Westen, D. (1991). Social cognition and object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9, 429-455.

원고접수일 : 2004. 9. 9

게재결정일 : 2004. 10. 18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Object Relations Inventory

Boohyung Park

Clinical Medicine Institute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alidate self-report measurement, Object Relations Inventory(OR Inventory). Study 1, to confirm reliability and factory structure of OR Inventory and to gain Korean factor score coefficient, OR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416 undergraduate & graduate students. In the results, Crohnbach α coefficient, split half reliability coefficient(Spearman-Brown), and item-factor score correlation of OR Inventory were found to have acceptably high, and the 3-week interval test-retest reliability coefficient of OR Inventory was reasonably high. Therefore, internal consistency and the stability over time OR Inventory were ascertained. In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like the structure of English version of Object Relations Inventory in Bell et al's validation study(1985), four factors of insecure attachment, social incompetence, alienation, and egocentricity were extracted, and factor score coefficient matrix of OR Inventory was put out. In study 2, to confirm concurrent validity of K-OR Inventory, the scales measuring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self-centricity, sociality deficiency, attachment-dependence, attachment-anxious, and attachment-close with the K-OR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240 undergraduate students. K-OR Inventory factors score applying factor score coefficient of K-OR Inventory put out in study 1 were gaine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se K-OR Inventory factor scores and corresponding the measures were found to be moderate to almost high positive. The above results show that K-OR Inventory has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as a measure of object relation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y.

Keywords : Object Relations Inventory(OR Inventory), factor structure, internal consistency, stability over time, concurrent validity